

[종합]

광주시 '세계한상대회' 유치 나서

〈해외동포 기업인 축제〉

내년 7차대회 이달중 유치의향서 전달 특급호텔 건립 등 인프라 확충·홍보도

광주시가 해외동포 기업인들의 축제인 '세계한상(韓商)대회' 유치를 나선다. 광주시는 19일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민족 경제인들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글로벌 경제 교류·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 제7차 대회(2008년) 유치를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월 중에 세계한상대회 주관 단체인 '해외동포재단'에

유치의향서를 전달하는 한편 3월 안에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특급호텔 건립 등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2천여명이 참가하는 한상대회를 유치할 경우 참가자들이 직접적으로 광주에서 소비하게 될 금액만도 약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소득과 고용 등 300억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와 대형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컨벤션산업 육성에도 기여, 국제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한상대회 유치를 통해 문화수도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변모된 광주 발전을 동포 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릴과 동시에 비엔날레 및 전문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도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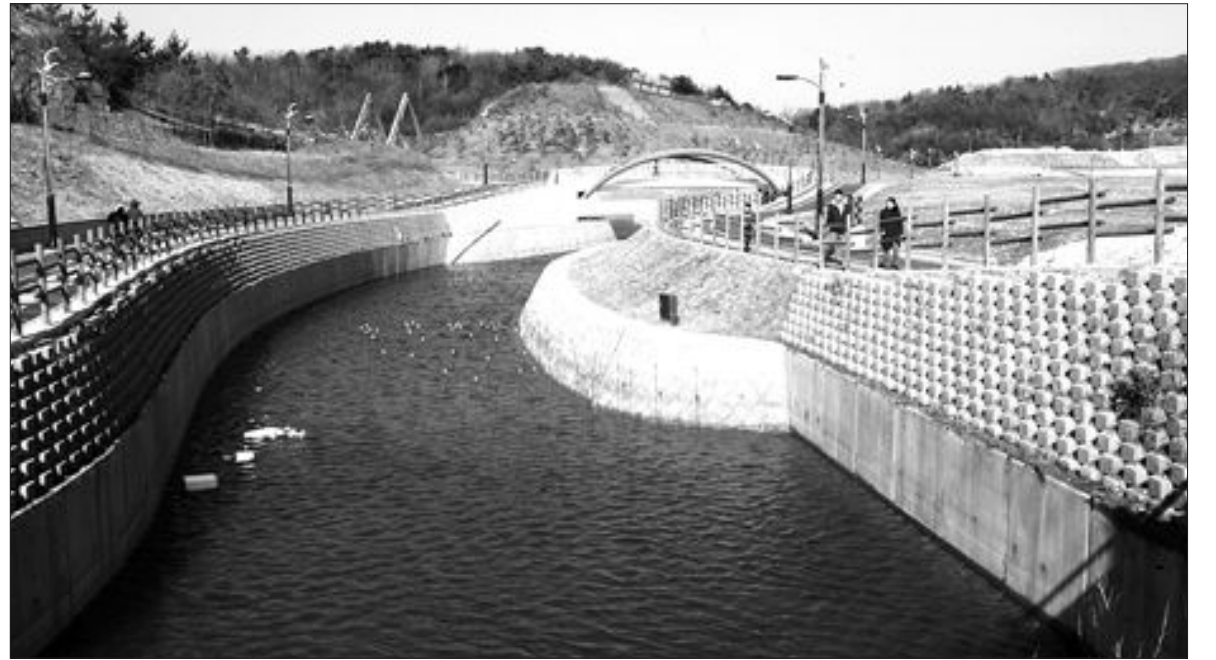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해 부산대회는 38개국에서 2천285명이 참가했으며, 3억5천만 달러의 수출상당과 계약이 체결됐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중국의 화상(華商), 인도의 인상(印商) 등과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포 경제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세계한상대회는 2002년 서울에서 제1차 대회가 열린 이후 2003년(2차)에도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2004년 제주, 2005년 경기, 2006년 부산, 올해에도 부산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일찌감치 오는 2009년 한상대회 유치활동에 들어가는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한상대회 유치를 열을 올리고 있다. /최희호기자 chae@kwangju.co.kr

복원 마친 폭포 살학도 ... 내달 시민들에게 개방



'세 마리의 학이 내려앉았다' 섬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깃든 섬, 폭포 살학도가 복원돼 다음달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살학도는 지난 1973년 간척·연륙공사로 인해 3개의 섬이 육지로 매립되었다. 복원된 소삼학도와 중삼학도 사이의 호안수로가 교량과 함께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살학도에는 곰솔 등 4만여그루의 나무도 새로 심어졌다. 목포시는 오는 2009년까지 1천234억원을 들여 살학도에 공원과 길대충 전 대통령 기념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의경도 '주 5일 근무'

각종 시위 진압이나 야간 방범 순찰 등으로 휴일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던 전·의경들이 앞으로는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전·의경 주간 근무 시간 총량제'를 도입해 주간 근무 시간이 70시간이 넘을 정도의 격무에 시달리는 전·의경에게 매주 2차례 휴식을 배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의경 상설초대의 근무시간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휴식시간을 줄 계획이다.

현재 상설초대에 속한 전·의경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0.9시간으로 주 5일제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의 177%에 달한다. /연합뉴스

20대 후반 '백수' 107만명

1년새 6만명 늘어
39개월만에 최대

취업, 구직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후반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3천명 줄었지만 25~29세는 107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16만4천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통계의 구직기간이 4주 기준으로 바뀐 1999년 6월 이후 최대다.

지난 달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20~24세는 12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3천명 줄었지만 25~29세는 107만2천명으로 2003년 10월의 107만3천명 이후 가장 많았다. 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명이나 늘어나 증가 폭이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월 25~29세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확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들이 올해는 자신의 눈높이 맞는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더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30~34세 비경제활동인구는 109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만명 줄었지만 35~3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103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수

연령	인구 수
20~24세	126만명
25~29세	107만2천명
30~34세	109만8천명
35~39세	103만2천명
40~44세	84만1천명
45~49세	91만5천명
50~54세	92만9천명
55~59세	92만9천명
60세 이상	440만5천명

*2002년 10월과 2007년 1월 기준
/최희호기자 chae@kwangju.co.kr

자살, 교통사고死의 1.5배

2005년 1만2천명 자살... 5년새 배로 늘어

자살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고혈압으로 죽을 확률보다 높고 간암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로 죽은 사람은 2005년에 1만2천47명으로 2000년의 6천460명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자살자는 2001년 6천933명, 2002년 8천631명, 2003년 1만932명, 2004년 1만1천52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살충동은 40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작년에 전국 3만3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나이별 자살충동을 경험한 확률은 40~49세가 12.7%로 가장 많았고 50~59세 11.6%, 30~39세 10.5%, 15~19세 10.1%, 60세이상 8.3%, 20~29세 8.1% 등이었다.

아울러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태어난 아이가 일생에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2.63%로 나타났다. 이는 간암으로 죽을 확률 2.85%보다는 조금 낮고 고혈압으로 사망할 확률 2.44%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시민단체·종교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통은 몇배로 커졌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과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취업 준비, 구직 단념, 가사, 육아, 연로, 심신 장애 등으로 구직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미이다.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과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취업 준비, 구직 단념, 가사, 육아, 연로, 심신 장애 등으로 구직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미이다. /최희호기자 chae@kwangju.co.kr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대 안정 불구

학원비 8.5% 급등 ... 교육비 부담 가중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학원비가 크게 올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입학원비(종합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올라 1996년 7월의 8.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고입학원비(종합반)도 지난해

동월보다 9.6%나 올랐으며 피아노 학원비 상승률은 4.7%로 2003년 8월의 5.0% 이후 최고였다. 미술학원비는 1년 전보다 3.9% 올라 상승률이 2004년 8월의 4.6% 이후 가장 높았으며 외국어 학원비는 5.2% 인상돼 200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취업학원비는 4.9% 올라 상승률이 지난해 7월의 5.0% 이후 최고였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062)220-0524 •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 예금주(주)광주일보사

변호사 개업인사

저 서장법은 이번이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 직무대행을 공으로 정든 변호를 떠나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강진 출생(1962년), 대입결정고사 합격(1980년), 서울대학교 졸업(87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7기, 88년부터 광주지방법원 순환지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행정(주세) 가사, 신청, 강제, 개인회생등의 승무원과 의사, 변호사, 기업법률자문 등 기타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辯護士 서정암 법률사무소

• 초 대 일 시 : 2007. 2. 28(수) 오후 5시부터
• 업무개시일 : 2007. 2. 13(화)
• 주 소 : 광주 동구 지산동 715-2 법스타운빌딩 309호
• 전 화 : 062-226-5112~4
• 팩 스 : 062-226-5118

해남군 공고 제2007-78호

사전환경성검토(초안)공람 및 설명회개최 공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하천지반단면지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공람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0일
해 남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 명 : 하천지반단면단면지
•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하천지반단면지
• 담당 임원 : 김철호

• 사업면적 : 2,806,591㎡
(역사부 1,022,232㎡, 공유부 1,784,359㎡)
• 사업규모 : 1.5km

2.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7. 2. 20~2007. 3. 12(21일간)
• 장 소 : 해남군청 전라선사업과, 하천지반단면지
• 주민설명회 개최 : 2007. 3. 5(월), 14 : 00
• 장 소 : 하천지반단면지 회의실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07. 3. 19까지(공람종료 후 7일까지)
• 제출장소 : 해남군청 전라선사업과, 하천지반단면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의견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 방안 및 공람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4. 7.타당성의 해남군청 전라선사업과 ☎ 061-530-5864

• 사업시행자 : 대한건설(주)

취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전남과학대학!!

대졸자(전문대이상) 특혜입학생 모집

입시상담전화 1588-5051
http://www.chunnam-c.ac.kr

○ 모집기간 : 2007.3.9(금)까지 접수

학과	모집인원	상담전화	상담교수
간호과	4명	011-601-3233	박미화
치위생과	6명	016-603-8312	문상은
작업치료과	5명	010-4642-5352	이진종
사회복지과	7명	016-625-5254	정미자
유아교육과	6명	011-610-9626	박애자

대학졸업자로서 본대학 입학 시 특혜

- 재입학 장학금 지급
- 타 대학 졸업학점 인정에 따른 수업료 감면혜택과 수업부담감소

자격증 취득

- 국가자격증 이외 다양한 자격증 취득 집중지도 (경력마시지, 노인상담, 노인케어, 심폐소생술, 원예치료, 미술치료 등)

★ 일반학과 추가모집상담 : 입시홍보처 061-380-5050~

세게를 앞서는
전남과학대학
CHUNNAM TECHNO COLLEGE

산행안내

임(도) 06시영주체육관광체육국에
의견경청문답http://cate.daum.net/
governor: F.082-266-7223, 011-621-7201

▲광주도요산악회 해남 단대선 2월 21일(토) 08시 광주역(06)에서 좌전장(신원정관)출발 T.011-9614-2729

▲기고파산악회 전남 해남 능봉산(경해년 시간제) 2월 22일(토) 08시 광주역 앞 출발 T.017-602-2800, 011-601-5235

2월 22일(토)
▲광주목요산악회 해남 강진군 2월 22일(토) 08시 광주역 앞 출발 T.011-9601-8258, 011-441-8845

▲요산회 설악산 대청봉 2월 24일(토) 21시30분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나시도산악회 명지 연인산 2월 24일(토) 06시영주체육관광체육국에
의견경청문답 T.011-610-7675

▲울타리산악회 경남 거창(비비봉) 2월 25일(토) 08시 국내로출발 출발 T.011-601-0132, 010-5500-3558

▲산악회와 장흥 환관산 2월 25일(토) 08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19-4609

▲광주메이리산악회 전북 부안 최불바위굴(산악) 2월 25일(토) 08시 사봉 앞(문예회관광주) 출발 T.011-601-6011-6011

▲광주자연보전산악회 거창 근곡봉 2월 25일(토) 07시30분 영주체육관(부등경기장광주) 출발 T.010-3599-0329

▲광주원산악회 하순 웅정산(시산) 2월 25일(토) 09시 영주체육관광체육국에
의견경청문답 T.011-610-7675

▲울타리산악회 경남 거창(비비봉) 2월 25일(토) 08시 국내로출발 출발 T.011-601-0132, 010-5500-3558

▲산악회와 장흥 환관산 2월 25일(토) 08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19-4609

▲광주메이리산악회 전북 부안 최불바위굴(산악) 2월 25일(토) 08시 사봉 앞(문예회관광주) 출발 T.011-601-6011-6011

▲광주자연보전산악회 거창 근곡봉 2월 25일(토) 07시30분 영주체육관(부등경기장광주) 출발 T.010-3599-0329

▲광주원산악회 하순 웅정산(시산) 2월 25일(토) 09시 영주체육관광체육국에
의견경청문답 T.011-610-7675

▲삼각산악회 전남 해남군 두문산(하천지반단면지) 2월 25일(토) 08시 광주역 출발 T.011-608-7627, 011-605-5034

▲광주비두리산악회 전남 고흥 마복산 2월 25일(토) 08시 광주역 출발 T.011-610-0871, 017-651-3675

▲회정고(구)회내산악회 영동 빈주지산 산도를 2월 25일(토) 07시 화강동 추진회관(문예회관광주) 앞 출발 T.011-9604-2017, 011-617-6979

▲광주자연보전산악회 거창 근곡봉 2월 25일(토) 07시30분 영주체육관(부등경기장광주) 출발 T.010-3599-0329

▲삼각산악회 전남 해남군 두문산(하천지반단면지) 2월 25일(토) 08시 광주역 출발 T.011-608-7627, 011-605-5034

▲광주산악회 2월 25일(토) 영주체육관(부등경기장광주) 출발 T.011-608-7627, 011-605-5034

▲광주자연보전산악회 거창 근곡봉 2월 25일(토) 07시30분 영주체육관(부등경기장광주) 출발 T.010-3599-0329

▲삼각산악회 전남 해남군 두문산(하천지반단면지) 2월 25일(토) 08시 광주역 출발 T.011-608-7627, 011-605-5034

▲광주자연보전산악회 거창 근곡봉 2월 25일(토) 07시30분 영주체육관(부등경기장광주) 출발 T.010-3599-0329

▲삼각산악회 전남 해남군 두문산(하천지반단면지) 2월 25일(토) 08시 광주역 출발 T.011-608-7627, 011-605-5034